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966-8206)
사 무 실: 703-968-3010
팩 스: 703-968-3013
주 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희망의 순례자들

지난 8월 26일(화), 27일(수) 이틀 동안 성령기도회 주관으로 준비된 '은혜의 밤' 행사가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행사동안 "악은 지혜를 이겨 내지 못한다"는 주제로 인천교구의 김현우 바오로 신부님께서 방문해 강의해주셨고, 배하정 다니엘 주임 신부님과 함께 성령안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행사동안 바오로 신부님께서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고 성령의 힘으로 악을 물리치며, 가족과 이웃에게 생명의 말을 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참석한 많은 교우분들이 산부님의 강의를 귀기울여 들으며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자세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졌고, 중간 중간 찬양과 율동을 함께하며 손을 높이 들어 맘껏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던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하였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성령기도회는 함께 해주신 교우분들과 신부님들께 감사를 전하며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린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의 자세

오늘 복음에 나타나는 바리사이 지도자들은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이 초대받은 잔치 그 자체보다는 '자리'와 '대우'에만 쏠려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았다면 그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또한, 주인이 그 잔치를 베푸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돋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에만, 주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대우'하는지에만 주의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에 신경 쓰는 사람은 보통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앉는 '자리'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 앉으면 자신이 별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고 여겨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존재이며, 그 누구도 대신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품격을 지녔음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이들은 겉으로 비치는 모습이나 타인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앉는 사람이 그 자리까지 빛나게 만들 수 있음을 알기에, 자신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결실을 얻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십니다. 가장 구석지고 볼품없는 자리에 앉더라도 그 주위를 밝게 만드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또한,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바라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의 입장입니다. 즉, 우리가 삶이라는 잔치에서 어떤 '자리'에 앉을지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더 좋아 보이는 자리에 앉겠다고 욕심내고 집착하며 고집부릴 게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신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라야겠지요. 사실 부족하고 결점투성이인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어 하느님을 실망시키고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우리가,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성은이 망극한' 일입니다. 주인이신 하느님보다 손님인 나를 더 높이려고 하고, 하느님께 은총과 사랑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께서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기에 '세상의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전부라고 여기며 목을 매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재물에 기대려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불안함과 성급함이 만드는 조바심, 원하는 걸 더 많이 얻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구차함이 일상이 된 이들은 아무리 지체 높은 자리에 앉아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 그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 자리를 빼앗기면 내 인생도 끝이라는 두려움으로 좌불안석이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어도, 다른 이들로부터 모욕과 무시를 당해도, 나는 하느님께서 소중한 생명과 고유한 소명을 주신 특별한 존재임을 믿고 사는 이들은 자기 삶의 참된 주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자신을 낮춘 이들이 그분 은총에 힘입어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랑의 섭리'입니다.

함승수 세례자 요한 신부 (서울대교구 목3동)

[금주의 전례 상식]

- 미사 중 복음을 낭독하기 전 작은 십자성호를 긋는 이유

일반적으로 십자 성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십자 성호와 작은 십자 성호입니다. 큰 십자 성호는 우리들 천주교 신자들이면 누구나 다 기도나 예식을 전후해서 긋고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함으로써 사실 그리스도교의 가장 심오한 진리들인 삼위일체의 신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하셨다는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은 십자 성호는 미사 때 복음을 듣기 전에 사용됩니다. 이때 작은 십자가를 이마, 입술 그리고 가슴에 긋는 것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여 간직하며 또 이를 입술로써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더욱이 가슴에다 십자 성호를 긋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를 마음으로 이해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미사 때 복음을 듣기 전에 이 작은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우리의 복음전파 사명을 다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1. 2차 헌금 안내

- 이번 주일 (8월 31일)에는 Special Collection for Gaza (가자 지구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긴급 구호 자금)를 위한 교구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 (9월 7일) 에는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중 22주간 모임 안내

- 8월 31일 (일) : 고국 성지 순례 모임 (오전 11시 30분)
  하상 성인학교 강사 회의 (오전 11시 30분)
- 9월 2일 (화) : 어버이 성서 봉사자 월례 모임 (저녁 8시)
- 9월 4일 (목) : 떼제 미사 및 성체 강복 (저녁 7시 30분)
- 9월 5일 (금) : 봉성체 (오전 9시)
  십자가의 길 (저녁 6시 50분)
  베드로회 형제 모임 (저녁 8시)
- 9월 6일 (토)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오전 10시 30분)
  하상 한국학교 개강식 (오후 12시)

3. 연중 23주간 모임 안내

- 9월 7일 (일) : 구역 봉사자 회의 (오전 11시 30분)
  K of C 월례 회의 (오전 11시 30분)
  사랑의 울타리 (오전 11시 30분)
- 9월 13일 (토) : 유아세례 (오후 2시)

4. 9월 첫 주간 전례 안내

- 9월 4일 (목) : 저녁 7시 30분 떼제 미사, 성시간
  (새벽 미사 없습니다.)
- 9월 5일 (금) : 저녁 6시 50분 십자가의 길, 7시 30분 미사
- 9월 6일 (토) : 오전 9시 묵주 기도와 묵상, 고해성사,
  오전 10시 30분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새벽 미사 없습니다.)

5. 하상 성인학교 강사 회의

- 일시: 8월 31일 (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하상관 교무실
- 선생님들께서는 교무실로 시간 지켜서 회의 참석하여 주세요.

6. CCD/CYO 주일 학교 개강

- 일시: 9월 7일 (일) 2시 미사 후
- 주일학교가 새로운 학기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당에서 주일학교를 통해 신앙을 전수받아 행복한 신앙생활를 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9월 9일 (화) 선거일 - 친교실 사용 금지

- 9월 9일 (화) 은 연방 하원의원 보궐 선거일로 성당 친교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단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날 모든 모임은 하상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복사단 모집

- 대상: 첫 영성체 받은 초등학교 4-6학년
- 신청: 9월 1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 문의: 권용우 스테파노 571-244-0333
- 어린이들이 복사를 통해 제단에서 봉사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며 사는 삶을 배워가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부모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 CCD/CYO 주일학교 등록

- 등록기간 : 9월 14일 (일) 까지
  (9월 14일 이후에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비 : 학생 1 명당 $100
- 등록 장소 : 주일 2시 미사후 하상관 교무실
- 8월 3일부터 학부모님들께 구글폼 링크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며, QR code가 포함된 안내 표지판도 하상관 근처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 주일학교 활동 (복사, 오케스트라, 성가대) 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주일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 문의 :
  CCD (유치부-8학년)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624-8196
  CYO (9학년-12학년) 구아름 데레사 교감 703-599-8869

10. 하상 성인 학교 가을 학기 안내

- 일정: 9월 9일(화) -12월 5일(금)
- 등록: 8월 31일, 31일, 9월 7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접수
- 과목: 생활영어, 서양화, 민화, 수지요법, 성악교실, 키보드
  색소폰, 크로마하프, 기타, 장구, 라인댄스
  핸드폰, 컴퓨터
- 세부사항은 주보대에 비치된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김명희 율리안나 교장 703-217-2775

11. 청년 성서 모임 종강 미사

- 일시: 9월 14일(일) 5시 청년 미사
- 한 학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청년 성서 모임종강 미사를 봉헌하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성당 열쇠 가지고 계신 분들 파악합니다.

- 성당과 하상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성당과 하상관의 열쇠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면 성당과 하상관 전체 열쇠 뭉치를 바꿀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자진하셔서 등록해주셔서 성당 재정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9월 7일(일) 주일 5시 미사 후까지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13. 성당 홈페이지 & 주보 QR 코드 안내

- 성당 홈페이지와 주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보대 옆에 QR코드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 집에 가져가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소식을 전해주세요!

- 주보에는 매주 본당 소식을 기사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주에 있었던 주요 행사나 단체 소개, 알리고 싶으신 소식이 있으면 주보팀에게 연락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본당 공동체 주보를 위해 새로운 소식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이재훈 빅토리오 801-386-130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번 주어진 세례명을 바꿀 수도 있나요?

- 세례 때 새 이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뜻합니다. 세례명은 좋아하는 성인의 이름을 골라 정하는데, 일생동안 그 성인을 수호자로 공경하며 덕행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 세례성사가 그리스도교 신앙에 들어서는 입문 성사로서 일생동안 한번으로 영구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처럼, 한번 받은 세례명도 함부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 이에 대해 한국 주교회의는 2015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를 통해 “신자가 이름을 바꿨을 경우에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기록하지만, 세례명은 사목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습니다.
- 하지만 어릴때 세례를 받아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례명을 받았거라 잘못 기재된 경우 등 신자 중에는 세례명을 바꾸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대한 사유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는 세례명의 음감이 좋지 않다던가 너무 흔하다는 것입니다.
- 같은 세례명을 다른 언어권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요한은 존(영여권), 장(불어권), 후안(스페인어권), 조반니(이탈리아어권), 얀(북유럽), 이반(러시아어권)으로 다양하게 불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세례명에 대해 다른 언어권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같은 이름의 성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 그 중에 어떤 분을 따를 것인지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8월 24일 (연중 제 21주일)

봉헌금	$8,947.00
교무금	$16,600.00
교무금 (신용카드)	$3,800.00
감사 헌금	$200.00
온라인 봉헌	$2,290.00
합계	$31,117.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오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5년 9월 4일(목) 오후 5시 - 6시
2025년 9월 5일(금) 저녁 8시 - 9시
2025년 9월 7일(일) 오전 6시 - 7시

1.가톨릭 소식 2. 주일강론
3.가톨릭 영상교리 : 평신도: 세상 안에 살면서 하느님 나라 건설
4. 내가 만난 하느님 : 기부천사 92세 고복자 마리아 할머니

교중미사 예물봉헌

8/31 이번주	우드브릿지
9/7 다음주	센터빌 1반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